



19일 전 세계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의 포스터. 사진제공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신드롬 이어 ‘지옥’ 세계 1위 바통터치

넷플릭스 19일 공개 하루만에 글로벌 TV쇼 1위 24개국 1위...美·佛·加·獨 등서 초반부터 강세 ‘오징어게임’ 2위 ‘연모’ 9위... K드라마들 인기

이번에는 ‘지옥’이다. 드라마와 영화, 케이팝 등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거침없는 세계적 질주 속에 ‘오징어게임’에 이어 ‘지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19일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서 동시 선보인 가운데 공개 하루 만인 20일 ‘글로벌 가장 많이 본 TV 쇼(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 앞서 9월23일 이후 46일 동안 1위 자리를 지켰던 ‘오징어게임’(2위), KBS 2TV ‘연모’(9위)와 함께 한국드라마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OTT 콘텐츠 랭킹 사이트 플릭스파트를 집계해 보면 ‘지옥’은 순위를 공개한 84개국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벨기에, 싱가포르, 홍콩, 나이지리아, 멕시코 등 24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오징어게임’이 9월17일 공개돼 6일 만에 기록한 성과를 단 하루 만에 얻었다. 특히 ‘지옥’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을 장악하고, 이후 남미와 중동 지역으로 확산한 뒤 유럽 등으로 인기를 이어간 최근 1~2년 사이 한국드라마의 흐름과는 다른 궤도를 그리고 있다. ‘오징어게임’처럼 공개 초반부터 프랑스(2위), 미국·프랑스·캐나다·독일(3위) 등 대륙을 망라해 다양한 국가에서 시선을 끌어 모으고 있다.

해외에서도 많은 관객의 시선을 모은 흥행작 ‘부산행’의 연출자 연상호 감독의 신작인 ‘지옥’은 유아인·박정민·김현주 등이 주연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의 사자’가 물고 온 공포와 혼란의 세상에 맞닥뜨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초자연적 현상과 종교를 소재로 장르적 색채를 뚜렷하게 하며 현실의 모습을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미·유럽 지역의 관심도 이런 점으로 향한다. 연상호 감독은 “우리 사회에 있을 법한, 각자 신념이 다른 인간들이 충돌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했다. 박정민은 이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을 만한 공포와 혼란”이라며 해외의 시선을 기대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옥’은 한국드라마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영국 BBC가 전 세계 신작 드라마 가운데 ‘지옥’을 ‘11월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꼽는 등 일찌감치 해외의 기대를 모아왔다. 원작 드라마에 대한 관심은 물론 꾸준한 리메이크(관련기사 11면) 등으로 작품적 완성도와 기획력을 평가받고 있는 한국드라마의 세계적 인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1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www.sportsdonga.com

오세훈 환상 2골... 울산 “1위 포기 안해”

발로 머리로 ‘원샷 원킬’ 3-1 제주 꺾어...수원FC에 패한 1위 전북에 다득점 뒤진 2위



울산 오세훈(왼쪽)이 21일 안방에서 열린 2021시즌 K리그1(1부) 36라운드 제주전 후반 추가시간 결승골을 터뜨린 뒤 바코와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울산은 3-1로 이거 선두 전북을 바짝 추격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제주와 비기면 연을 게 없었던 울산 후반전 오세훈 헤더 결승골로 승기 종로직전 역습엔 이동경이 썩기골 울산, 12월 5일 대구전서 우승 노려



울산 현대가 안방에서 극적인 승리를 따내며 대역전극을 향한 추격을 시작했다.

울산은 21일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하나원큐 K리그1 2021’ 36라운드 홈경기에서 오세훈의 멀티골과 이동경의 썩기골을 앞세워 제주 유나이티드를 3-1로 꺾었다. 울산은 이날 수원FC에 2-3으로 덜미를 잡힌 선두 전북 현대와 똑같은 승점 70(20승10무6패)을 쌓으며 우승경쟁을 이어가게 됐다. 2경기씩만 남겨둔 가운데 다득점에서 앞선 전북(67골)이 1위, 울산(62골)이 2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6일 전북과 맞대결에서 2-3으로 패한 뒤 울산은 ‘무

관’으로 시즌을 마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FA컵,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에서 잇달아 탈락했고, 리그에서도 자력 우승이 불가능한 상황에 몰렸다.

그러나 울산에 기회가 찾아왔다. 울산-제주전에 앞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전북이 수원FC에 일격을 당했다. 전반에만 2골을 허용한 전북은 후반 31분 문선민~36분 구스타보의 연속골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43분 정재용에게 통탄의 결승골을 내주고 무너졌다.

전북의 위기는 곧 울산의 기회다. 다득점에선 밀리지만 제주에 승리하면 승점을 동률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었다. 홍명보 울산 감독은 “우리가 잘해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전북의 경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면서도 ‘빅버드’에서 날아든 낭보에 환한 미소를 보였다.

그러나 제주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전반 8분 제주 주민규는 전 소속팀의 골문을 향해 다이빙 헤더슛을 시도하며 득점을 노렸다. 울산도 전반 추가시간 예리한 역습으로 경기장 분위기를 달궜다. 제주의 코너킥 공격을

막아낸 뒤 빠르게 공격에 가담한 설영우는 페널티지역 안에서 오른발 슛을 때렸지만, 제주 골키퍼 이창근에게 막혔다.

울산은 후반 들어서도 맹공을 가했다. 단단하던 제주 골문을 연 것은 오세훈이었다. 후반 8분 강력한 중거리 슛이 골포스트를 때려 아쉬움을 남겼지만, 1분 뒤 비슷한 위치에서 기술적인 터닝 동작으로 공을 받아낸 오세훈은 정확한 원발 슛으로 선제골을 뽑았다.

그러나 울산은 후반 28분 윤일록의 자책골로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홍 감독은 부상에서 갓 돌아온 이동경, 조지아국가대표팀 일정을 소화한 뒤 복귀한 바코까지 투입하는 강수를 썼다. 무승부로 경기가 끝난다면 울산으로선 연을 게 없는 상황. 후반 추가시간 오세훈이 이동준의 크로스를 몸을 던지는 헤더슛으로 마무리해 극적인 결승골을 낙였다. 종료 직전에는 매서운 역습에 이은 이동경의 썩기골까지 터졌다. 꺼져가던 불씨를 살린 울산은 28일 수원 삼성(원정), 다음달 5일 대구FC(홈)와 잇달아 맞붙는다.

▶관련기사 2면

울산 | 이승우 기자 raul1649@donga.com



KMGM
HOLD'EM & EVENT PUB

KMGM 홀덤 이벤트펍 가맹점 모집

30평미만으로 창업 가능 / 1억미만 소자본 창업 / 업종변경가능

외식 유통 프랜차이즈 KMGM에서
미래를 함께하실 점주님을 모집합니다.

창업 상담 : 1644-7861

K-SPOBET

NEW

신개념 베링펍 프랜차이즈 총판모집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배구 · 홀덤 · 전종목

KSPOBET과 함께!
누구나 할 수 없는 창업이 성공한다!

문의 전화 : 010-8311-8411